

광주 MZ세대 '핫플' 동명동을 주목하자

아시아문화전당·I-PLEX센터 주변 트렌드 선도
이색 카페·갤러리·공방 즐비 문화체험 공간 우뚝
문화특구·임대수요 풍부 등 호재 투자가치 탁월



광주시 동구 푸른공원.



광주시 동구 중앙도서관.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의 거리.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이 문화관광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어울려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명동은 옛 광주읍성의 동문 밖 동계천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근현대 문화자산과 시대흐름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이 많고 최근에는 곳곳에 이색 카페와 갤러리, 공방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옛 도청과 시청, 구청이 동구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광주 오피니언 리더들이 밀집해 살던 부촌지역이었다.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다음에는 지역의 대표적 사학인 조선대와 의사들의 요람인 전남대의 학생들, 아시아문화전당과 IPLEX창업센터에서 일하는 MZ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지금은 광주MZ세대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중앙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면 많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곳을 향할 것이다.

동명동은 서울의 대학로와 연남동처럼 광주 MZ세대들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6월 광주시가 대표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국비 4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4개의 주요 거리와 가로 환경을 정비한다. 또 관광거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

특히 획일적인 도로 포장방식에서 벗어나 거리별로 색다르게 인도와 차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곳곳에 야간 조명을 달고 가로변 담장을 이용한 벽면 녹화, 소규모 친수정원, 문화큐브를 거리 성격에 맞춰 배치한다. 문화마을과 어울리게 보안등과 벤치, 펜스를 조성한다.

교통까지 편리해진다.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과 2호선 예정역인 지산역의 중간에 자리 잡게 된다. 한가롭게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푸른 길공원을 끼고 있어 도심 속 안락처라고 할 만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동명동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봉선동, 상무지구와 어깨를 겨룬다.

부동산 격언 중에 '사람이 모이면 가치가 모인다'라는 말을 입증한 셈이다. 코로나시대에도 불구하고 동명동의 유통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연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신규 원투룸 주택, 오피스텔, 호텔이 들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높은 땅값과 행정규제 때문이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동명동이 가진 지역적 가치를 키우고 세대를 아

우르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대표문화마을사업을 통해 지속적 투자가 절실하다.

또 서울의 대학로나 신촌, 홍대거리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와 관광사업, 그리고 대중문화와 K-POP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라는 나무는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 속에서 자란다.

/서미애 기자

광주 최고급 테마형 오피스텔 '동명동 더 시그니처 테라스' 분양

10월 2일 남구청 1층 주택홍보관 오픈
특별한 테라스 공간으로 차별화 눈길
오프 뮤직 라이브러리·스마트 라이프

(주대중합건설이광주시동구동명동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마형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0월 2일 남구청 1층 주택홍보관에서 '더 시그니처 테라스'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1층으로 ▲A타입 (41㎡, 186세대) ▲B타입 (59㎡, 25세대) ▲C타입 (70㎡, 25세

대) 총 236세대다. 특히 일부 세대는 복층테라스 구조에서 이채롭다. '더 시그니처 테라스'는 테라스 옥상정원과 오프 뮤직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어서 지인을 초대해 시가지를 내려다 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 커뮤니티 오피스가 운영되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세대 내 시그니처 빌트인가구와 펜트리를 담당해 최적의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첨단 네트워크 디지털 시스템을 갖춰 방문자와 세대간, 세대와 관리실간 화상통화가 가능하다.

차량 도차 알림과 집안 가스, 거실 조명, 난방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고 별도의 셋탑 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 방송과 위성TV 수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C타입 (70㎡)은 인기평형대로 발코니테라스와 복층형으로 설계돼 신부부와 동거비율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광주시 동구 동명동 복합시설 '더 시그니처 테라스' 투시도.

반영해 차별화를 꾀했다.

과거 부촌이었던 동명동은 광주 젊은 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동리단길과 푸른길공원, 동구청,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공간 아이플렉스, 광주 중앙도서관 등 문화공간부터 행정기관들이 가까운 점이 특징이다. 또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있고 문화관광마을 지원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시대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숙식을 위한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신개념 퓨전 주택이다.

홈카페와 홈레스토랑을 꾸미고 파티 문화를 즐기면서 집안을 휴피트니스와 홈오피스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젊은층에게 매력 포인트다.

'더 시그니처 테라스' S&P컨설팅 정진석 대표는 "더 시그니처 테라스는 삶의 여유를 향유하는 문화 힐링 공간이다. 광주 핫플레이스 동명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모든 문화 커넥션의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초 테마형 오피스텔로 인근에 교육시설과 동리단길 같은 산책길이 있어서, 신혼부부와 2030 세대에겐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사무실과 사업장의 관한 자세한 정보는 '더 시그니처 테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미애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 보광중합건설(주)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